

인터뷰

## ‘2014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지난달 1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0만 건설인들의 축제인 ‘건설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제일의적 화두로 등장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건설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설인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152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 이 중 산업부문 최고 영예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은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과 김경배 (주)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박종웅 대표는 건설업계의 대표적 엘리트 2세 경영인으로서, 56년 간 유지되어 온 회사의 무차입 흑자 경영 전통을 지켜냄과 동시에 건협 서울시회장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생활형 SOC 투자의 불가피성을 서울시에 역제안함으로써 건설업 이미지를 바꾸고 물량난을 완충하는 성과 등을 거두었다. 사회공헌활동과 IFAWPCA 사무총장직을 맡아 한국 건설의 위상을 드높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배 대표는 지난 30년 간 건설 외길을 걸어온 전문 경영인으로서 SOC 건설과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창사 이후 당좌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상생 협력 정착에 노력해 왔고, 성실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억원 이상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에도 가입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 주>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김경배 (주)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

## “過猶不及의 철학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 경영”

- 정확 · 정직 · 정성을 모토로 성과, ‘열린 사회 · 경청하고 실천하는 사회장’ 지향 -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산업계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만 건설인들의 축제인 ‘2014 건설의 날’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인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건설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전체 건설업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장수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회사는 지난 1958년 창립 이래 56년 간 건설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경영 이념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도 경영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일 가족 모두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품질로 발주자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품질 방침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과 인화를 우선하는 기업 문화는 창사 이래 계속하여 무차입 경영과 흑자 행진을 이어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려함과 외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건설한 중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여 100년

건설기업의 길을 걸어 나갈 계획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FED 공사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FED 공사에서 쌓은 노하우가 국내 공사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요?

선진계서 미 군정청 행정국에 근무하신 것을 계기로 미군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1950년대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FED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FED는 까다로운 공사 관리로 공사 품질이 높기로 정평이 나았는데 수많은 FED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체득한 품질 · 안전 · 공정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국내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적용하여 최고의 시공 품질로 발주자를 만족시킴으로써 당사의 시공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 수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에르메스 도산사옥 프로젝트의 경우, 프랑스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 지명도 높은 타 회사들을 제치고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평당 건축비가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FED 시공 관리를 그대로 접목시켜 발주자로부터 우수 시공 표창은 물론이고 서울시 건축문화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 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 정직, 정성’을 모토로 하는 건설회사로 주변에 널리 알려지면서 수많은 발주자와 CM사로부터 시공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대한건설협회 서울사회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대외 활동 및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는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2011년 3월 서울시 건설협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원사 권익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협회를 지향하였습니다. 산적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서울시, 시의회, 각 구청을 비롯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 기관까지 수시로 찾아가 업계 애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줄기차게 뛰어 왔습니다. 본회와 힘을 합쳐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 주계약자 발주 최소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 지역의 부족한 공사 물량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수주 구조로는 안 되며, 또한 물량 확대를 위한 우리들의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설협회 사상 초유로 서울시회 차원에서 유력한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서울시 건설 예산에 크게 반영시킨 점은 가장 뿌듯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협회와 경청하는 회장을 표방하여 기획예산, 정책포럼, 동반성장, 사회공헌, 윤리 등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 대표회원이 상시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마련한 것도 인상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협회 서울시회가 본회와 함께 건설업계를 리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더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나눔 경영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지만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삼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09년부터 매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총 127명에게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시에는 1,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건협 서울사회장에 취임해서는 사회공헌사업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시 성금 기탁은 물론 건설 관련 전공 학생 장학금 지급, 우면산 산사태 복구 지원, 국립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건설산재 사고자 치료비 지원, 지역 복지관 급식 봉사,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성금 기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업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업의 새로운 먹거리로는 어떤 분야가 떠오를 것으로 보는지요?**

이제 개발 시대의 고도 성장기와 같은 건설업 활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또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OC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지켜내기도

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보급률도 2012년 기준으로 102% 수준에 달하여 주택의 절대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확충의 개념에서 이제 우리 건설산업이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공간 복지시설인

녹지·공원시설, 여가·체육시설, 문화시설, 보건의료 시설 등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재생, 갱생에 관련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 건설 시장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주거시설에 있어서는 최근 법적 기반이 마련된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새로운 시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건설시장 개척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건설산업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완벽 시공과 무한 책임, 그리고 나눔 경영의 실천”

- 현금 거래 원칙으로 相生 협력 추구, 노인 복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약속 -

김경배 (주)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번 2014 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계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대전제 아래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건설인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종합건설업체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번 수상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금탑산업훈장이라는 큰 상을 제가 받기까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의 자그마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제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정도 경영을 해온 결과를 가지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인터뷰

한국종합건설은 창사 이후 당좌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상생 협력 정책에 노력해 왔고, 성실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현함으로써 발주기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고객 만족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시공능력순위가 계속 높아지는 등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종합건설의 사훈이 정직, 인화, 성실입니다.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성실한 업무 태도를 가지면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는 당연히 잘 될 것이라는 게 평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사훈 이외에 완벽 시공과 무한 책임이란 경영 목표를 액자에 담아 사무실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중소 업체인 우리 회사가 기술 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건설 신기술 및 특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두 품질 최고주의를 통해 완벽 시공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를 통한 원·하도급 관계 유지도 원가 절감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건설인들의 화합과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비 부담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인재 양성 기금을 기탁하는 등 건설업계의 위상 강화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이 담당해 온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바뀌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되면서 회원사의 화합과 위상 강화에 많은 공을 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곳곳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다시 추대했겠지요(웃음). 특히, 저는 건설산업은 젊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0년 6월에 지역 건설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문연수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에 충청대학교 취업 클러스터 운영 협약을 체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 사업들은 모두 앞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재단에 5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던 10년 전 약속을 지키시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시키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성과를 제 입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멋쩍습니다만 나눔 경영에 대한 저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역 사학의 명문인 청석학원을 설립하신 두 조부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일찍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연장선 속에서 적십자나 공동 모금회에 매년 성금을 기탁하였고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노인 복지 및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실천하며 확산하는 데 일조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드릴까 합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 사진 : 최영익